

## 반딧불의 잔존 (청렴독후감 응모작)

태풍이 물러간 하늘을 기억한다. 번개가 지평선에 금을 긋고 천둥이 지축을 흔들었다. 센바람이 땅을 갈라놓을 듯, 바위를 부술 듯, 산을 뒤흔들 듯 몰아쳤다. 창문에 비친 음산한 그림자가 춤을 췄고, 강풍은 마왕이 아긴다는 흑마(黑馬)의 말발굽소리를 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두려워했다. 아버지는 눈에 나가셨다. 넘치는 물을 지켜보며 달리 방도가 없어서, 동동 밭을 구르셨다고 한다.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던 밤이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하늘은 고요하였다. 한해 농사가 하룻밤 사이에 판가름이 나서, 아버지는 종일 쓰러진 벼를 세우셨다. 농부의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졌고 해질녘 반딧불이 참 밝았다. 거센 바람도 꺾을 수 없었던 생명의 불빛이었다. 고요의 뒤에 반딧불이 날았다. 농부는 하늘을, 대지를 원망치 않았다. 일상은 지속되었고 반딧불의 불빛처럼 우리는 오늘을 살았다. 그 해 땀에 젖은 아버지의 넓은 등을 기억한다.

청렴의 뜻이 어렵다.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생경하게 받아들여지고는 한다. 한자어로 맑을 청(淸)에, 검소할 염(廉)을 모은 청렴(淸廉)의 뜻을 풀어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맑음이라 함은 자연 본디의 모습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청렴을 공무원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을 수 있다. 공무원(公務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단체의 사무나 업무를 맡는 이들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엔 국가나 지방에 소속되어서 공무와 관련된 일을 행하는 인원이 100만 명 가까이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막대한 수의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때로는 국민을 향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러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부정한 공무원의 사례는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패 공무원은 공무원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인상을 덧씌우며, 더 나아가 국가의 근간과 공공의 신뢰를 사상누각(沙上樓閣)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이 모두 ‘청렴’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글쓴이도 공무원으로서 민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청렴한 삶’에 대하여 자주 고민하고는 한다. 때론 필자를 무례하기 대하는 민원인과 감정적 충돌을 일으키기

도 하고, 해일처럼 밀려드는 업무에 허우적거리다 보면, 과연 내가 누굴 위하여 일하고, 공직자로서 어떻게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을지 숙고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은 여태 의례적, 관례적으로 행하여졌던 일체의 행위를 명문화하고, 그중에 잘못된 행위를 엄격한 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필자도 민원업무에 조심스러워지고 행동거지 일체를 주의하게 되었다. 가끔은 이해관계에 있는 민원인이 선물하는 음료수 한 캔도 정중하게 거절함으로써, 서로 멧쩍은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도대체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청렴한 삶’의 실체란 무어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청렴콘텐츠 수기공모전’에서 수상한 주요 ‘청렴수기’들을 정독하면서 공직에 계신 많은 선배님들과 동료, 그리고 국민들께서 ‘청렴한 삶’을 지키기 위해 고수하였던 ‘자신에 대한 엄격함’과,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불이익마저 감내하였던 부단한 노력의 과정을 감동적으로 읽었다. 공모전에 입상한 수기들은, 우리사회에 관습적으로 또 인간적인 이유로 만연해있던 ‘청렴하지 않은 행동’들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대담한 용기를 보여준다. 다수처럼 잘못을 모른 척 묵과하였다면 당장 일신의 안위를 보존할 수 있었을른지는 모르겠으나, 잘못은 그대로 잘못으로 남았으리라. 특정인들이 ‘청렴한 삶’을 위하여 다수에 맞서고, 뒤따르는 불이익마저 감내하는 용기를 보임으로써 세상은 조금 더 환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청렴수기’ 수상작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은 ‘청렴’을 위한 부단한 자기노력을 들 수 있다. 작금의 시대는 ‘청렴’의 주체인 공무원에게 담당업무만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관료제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보다 고차원적이고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 앞으로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사회복지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멀티요원의 능력을 요하고 마는 것이다. 글쓴이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다. 말하자면 농사에는 왕도나 요령이 없어서, 매일 한 삼씩 흙을 옮겨 산을 옮기고자 하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으로 수확물에 대한 정성을 다하자면,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는 때도, 더러는 불가항력에 의해 실패를 경험하는 때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청렴’을 성취할 수는 없더라도, ‘청렴’을 향한 개인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

해, ‘청렴한 삶’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마는 것이다.

둘째는 ‘청렴에 관한 원칙’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 지켜진다는 점이다. 업무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인간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세계에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시작되었던 비행(非行)은 없을 것이다. 간혹 어떤 행위가 사회적 기준선을 넘을 때가 있고, 때론 보는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 수도 있다. 희랍신화에 따르면, 아티카라는 도시 인근에 프로크루테스라는 도적이 있었는데, 그는 행인을 납치하여 자신의 돌침대에 눕히고,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몸을 늘여서 찢어 죽이고, 침대보다 키가 크면 침대를 벗어나는 신체부위를 잘라서 행인을 죽였다고 한다. 이처럼 고사(古事)속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처럼 원칙을 자의에 따라 기준점을 늘였다 줄였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규칙은 엄격한 해석과 엄정한 법칙에 의해 운용될 필요가 있다. ‘청렴’은 우리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디딤돌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약속되고 실천해야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청렴수기 수상작들은 일상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으며, 만약 서로간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익을 우선시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수기에서 청렴을 위한 ‘공공의 약속’을 눈여겨 볼 수 있다. 부정한 청탁을 통해서도 아무도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약속이 지켜진다면, 그리고 잘못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담보된다면, 그 누구도 부정행위를 쉽게 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렴을 제도적으로만 접근하거나 통제의 수단으로 인식할 경우,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다수가 동의할만한 청렴에 관한 공적인 약속을 분명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 청렴은 제도가 아니라 생활이며,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청렴한 사회는 농사를 짓듯이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조르주 디디-위베르만(Didi-Huberman, Georges, 1953~)은 저서 「반딧불의 잔존」(도서출판 길, 2012)에서 밤하늘을 밝히는 작은 불빛인 반딧불을 민중의 속성에 비유한 바 있다. 반딧불의 불빛은 서치라이트의 강한 불빛과 비교 할 수도 없을 만큼 약한 광도를 가지고 있지만, 예컨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불에서 반딧불을 본다면 태양의 강렬한 빛 못잖게 강렬하게 느껴질 것

이다. 이처럼 모진 풍파와 억압,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 듯, 꿋꿋하지 않고 이어져 온 민중의 힘이 마치 반딧불의 작은 불빛 같은 것이다. 반딧불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서치라이트 빛 같은 강한 힘은 없지만, 묵묵히 역사를 형성하고, 인류의 참 가치관을 계승해 온 것이다. 이러한 반딧불의 빛의 세기를 우리의 양심의 크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태풍이 지나간 고요한 하늘에서,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아버지의 넓은 등에서 양심과 청렴을 배웠다. 우리사회가 청렴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바는 절실함의 수준을 넘어서 처절한 수준이다. 공직자의 제 1덕목을 청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내적인 엄격함을 가리키는데, 공직자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며, 작고 사소한 기본부터 철저하게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청렴 수기 공모전 수상작’을 읽으면서 어려운 환경과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참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